

동두지

2022 | 여름 | 48호

녹두칼럼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기획특집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및 기념공원 개원식

뉴스초점

동학농민혁명 주요뉴스

기념재단 포커스

주요 사업 소개

유족인터뷰

송기홍
참여자 송영태의 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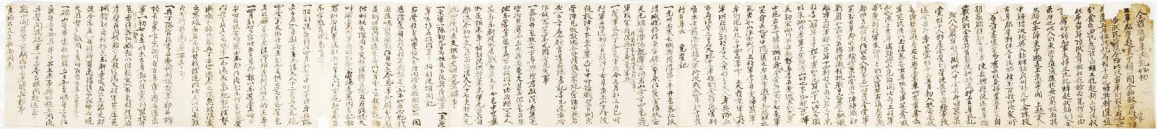
지역대담

강대석·송영배·이웅길
동학농민혁명천안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라도고부민란시초



『전라도고부민란시초』(全羅道古阜民亂始初) 조선후기, 19.0cm×174.0cm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소장

이 사료(史料)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학으로 일어난 고부봉기의 경위를 전라감영에서 기록한 문서이다. 작성된 시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고부봉기 원인과 전개과정, 동학농민군 조직체계와 지도자 인적사항, 황토현 전투 등을 담고 있는 이 문서는 동학농민혁명 시작단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조병갑 파면 이후 새롭게 임명된 고부군수 '박원명(朴源明)'을 '박원갑(朴元甲)'으로 잘못 기록한 오류도 보인다.

목차

- 04 **녹두칼럼**
고희범 / 제주 4·3평화재단 이사장
- 06 **기획특집**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및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원식
- 14 **뉴스초점**
제1회 김개남장군 학술대회
전봉준 장군 순국 127주기 추모제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정기총회
제15회 녹두대상 선정
제12회 동학농민혁명대상 선정
무안군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김응문 일가(一家) 유골 발굴
동학농민혁명 128주년 기념 '특집방송'
- 20 **기념재단 포커스**
기념재단 5기 제1차 이사회
2022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네트워크 포럼
원광대 사학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최후항전지 유물 기증
조원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조남규 관련 유물 기탁
- 22 **참여자 유족인터뷰**
송기홍 / 참여자 송영태의 손자



- 30 **지역대담**
강대석·송영배·이용길 /
동학농민혁명천안기념사업회
- 37 **지역단체 포커스**
전국 기념사업단체 행사
- 42 **교육·체험 프로그램**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 45 **파랑새 소식**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방문단체
- 46 **보도기사색인**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표지 설명 동학농민혁명 제128주년 기념포스터

전북 정읍 황토현전적(사적 제296호)에서 개최된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포스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평등한 세상을 열고자 했던 동학농민군의 함성이 하늘을 열고, 그 빛이 새로운 길을
열게 되었음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제자(題字) : 효봉 여태명

민족자존과 인권을 위한 투쟁

— 동학농민혁명과 4·3의 역사적 의미 —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

“우리가 의(義)를 들어 이에 이른 것은 그 뜻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 가운데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의 위에다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내쫓고자 함이라.”

“친애하는 경찰관들이여! 탄압이면 항쟁이다.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싸우는가? 당신들의 부모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돌리지 말라.” “시민 동포들이여! 경애하는 부모 형제들이여! ‘4·3’ 오늘은 매국 단선단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완전한 민족해방을 위하여! 우리들은 무기를 들고 쫓기하였습니다.”

맨 위는 1894년 3월 호남의 들녘에 메아리친 동학농민혁명의 창의문이요, 아래는 그로부터 54년 뒤인 1948년 4월 3일 제주도 인민유격대가 경찰과 도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다. 동학농민혁명의 기치는 ‘보국안민’이었다.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탐학한 관리들을 응징함으로써 고통 받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 동학농민들이 일어선 것이다. 제주의 4·3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정의로운 저항과 자주독립 통일정부 수립이 봉기의 핵심적 이유였다. 동학농민혁명과 4·3은 나라의 자주독립과 인권을 기본적인 가치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탐관오리의 탐욕과 학정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고자 봉기한 동학농민군은 잘 훈련된 관군과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게 무참하게 패배했다. 단선단정을 반대해 2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선출을 무산시킨 제주도민은 미군정의 지휘 아래 이승만과 군 수뇌부의 초토화 작전으로 인구의 10% 이상이 학살을 당하는 참혹한 피해를 당했다.

동학농민혁명과 4·3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오늘 우리는 그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동학농민혁명은 비록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그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불의에 저항한 농민들의 저항운동은 신분제의 타파와 내정개혁 등으로 역사발전의 단초를 제공했다. ‘반봉건·반외세 농민항쟁’으로 자리매김된 동학농민혁명으로 반일애국주의가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었다. 동학농민군이 주장한 내용은 폐정개혁에 반영되어 ‘과부의 재가 허용과 신분제 폐지’와 함께 갑오개혁에 부분적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가져오는 등 봉건사회의 일각을 무너뜨리기도 했다. 결국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중화운동의 뿌리로서 현대적 평등사상과 민주화의 지평을 연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4·3 당시 남한단독선거를 반대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분위기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제주도는 실제로 단독선거를 거부한 유일한 지역으로 남았다. 하지만 그에 따른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보복은 3만의 인명 희생과 막대한 재산피해, 공동체 파괴 등 전대미문의 참화로 귀결됐다.

비극적 종결 이후 4·3은 이승만과 군부의 독재정권이 이어지면서 왜곡과 폄훼로 점철되어 그 진실은 깊은 음지에 묻혀 버렸다. 하지만 유족과 제주도민의 가슴속에 자리잡은 한과 진상규명의 의지는 묻힐 수 없었다. 많은 이들의 희생과 지난한 투쟁으로 마침내 2000년 특별법 제정을 이뤄냈다. 이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에 이어 2021년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 보상과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이 진행되면서 과거사 해결의 전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0년 72주년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제주에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덧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라고 4·3의 성격을 규정했다.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하고자 일어섰던 동학농민혁명, 국토 양단과 그로 인한 민족상잔을 막아내고자 일어섰던 4·3항쟁, 세대를 달리 하는 두 개의 커다란 역사는 불의에 대한 저항과 민족의 자존을 지키기 위한 혁명적 운동으로 기억되어 마땅하다. 또한 동학과 4·3은 오늘날에도 시대를 뛰어넘어 민족의 자주독립과 통일, 평화와 인권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및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원식



지난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정읍 황토현전적, 사적 제295호)에서 ‘하늘을 여는 빛, 새로운 길을 잇다’라는 주제로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및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원식이 성대하게 펼쳐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관으로 거행된 기념식에는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정·관계 인사, 전국 기념사업단체 관계자, 천도교 관계자 등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감오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식전공연 | 정읍시립농악단, 정읍농악보존회 '길놀이'



■개막공연 | 대북 퍼포먼스 '아귀'



추모식



기념사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은 그 동안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등록을 마친 참여자 2,694명의 명패(名牌)와 수많은 무명 동학농민군의 넋을 모신 추모관에서 거행된 헌화의례(獻花儀禮)로 시작하였다.

기념식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헌화를 마치고 특설무대에 입장하자 동학농민군이 황토현에서 전라감영군을 맞아 크게 승리한 기상을 담은 대북공연 '승전고(勝戰鼓)'가 울려 퍼지면서 식전공연이 시작되었다. 이어,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에 따른 주요한 장면을 세계적 일러스트레이터 김정기 작가가 직접 그리고, 그 장면을 영상에 담은 주제영상 상영으로 기념식이 펼쳐졌다.

기념식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장정임, 정은우, 함수현, 정기백 등이 참여한 국민의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기념사, 기념공원 개원을 축하하는 각계각층 인사들의 영상메시지 상영, 신순철 동학농민

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의 기념공원 개원까지의 경과보고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원을 기념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34개의 기념사업단체 임원들이 해당지역의 흙을 가져와 한데 모으는 합토의식(合土儀式)을 무대 위에서 엄숙하게 거행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이 특정지역의 국한된 반란사건이 아니라 낡은 봉건제도를 개혁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만민 평등 세상을 추구한 우리나라 민주주의 뿌리이자 일제 국권침탈에 결연히 맞선 전국적인 반일 의병전쟁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합토의식을 거행하였다.

기념공연은 가수 송소희와 역사청소년합창단이 출연하여 '새야새야 파랑새야' 등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기렸고, 폐막공연은 왕기석 민속국악원장과 정읍시립국악단, 마당극패 우금치 단원들이 새롭게 구성한 '천명'(동학농민혁명 주제 창무극)이라는 음악극 공연이 펼쳐졌다.



■국민의례|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의 국민의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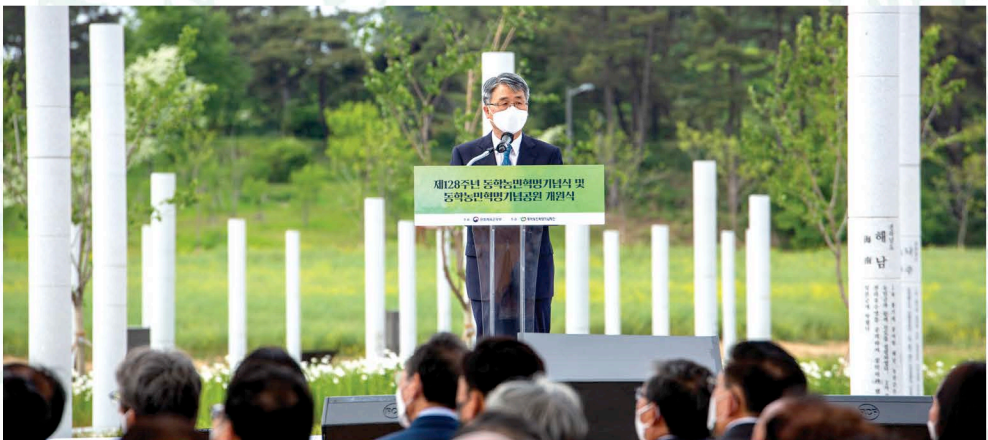


■국민의례|내빈의 국기에 대한 경례



■내빈석 | (우로부터 좌로)

김종택 부안부군수, 유진섭 정읍시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전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주영채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주용덕 천도교 총무원장,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경과보고 |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합토의식(合土儀式)



■축하영상



■기념공연 | 송소희, 역사청소년합창단



■기념식수 행사



■폐막공연 | 왕기석 국립민속국악원장, 정읍시립국악단, 마당극패 우금치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학농민혁명 유족 여러분, 오늘은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입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기리고 명예 회복을 위해 애써 오신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주영채 회장님, 천도교 주용덕 중무원장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신순철 이사장님을 비롯한 유관 단체 지도자와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 사업에 뜻을 같이해 주신 국회 윤준병 의원님, 송하진 전북도지사님,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여러분께 존경을 담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128년 전 바로 오늘 이곳 황토현에서 동학농민군은 전라감영군을 맞아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낡은 봉건제도 아래에서 신음하던 농민들이 부당한 현실에 대항한 최초의 항쟁이었으며 새로운 변화의 에너지를 전국적 농민항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이곳, 뜻깊은 곳에서 오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이 개원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시설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와 체험·전시 가능한 시설들이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기념공원 중앙에는 전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상징하는 아흔 개의 ‘울림의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동학농민혁명이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알리는 전당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갑오 선열의 숭고한 정신이 미래세대로 거듭해 계승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터전으로 삼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드높이고 전국화·세계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학술연구, 유적지 정비 등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현재, 유네스코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세계기록유산 등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동학농민군이 지향했던 인간존중과 평등의 가치는 세계가 공유하고 지켜내야 할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1894년, 갑오선열의 희생은 오늘 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있게 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후손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여깁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갑오년의 역사가 제자리를 찾고 세계사적 의미를 확인해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 일은 정부와 민간, 지자체가 합심하고 온 국민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 길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05.11.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전 병 극

전봉준 장군 순국 제127주기 추모제



■(사)전봉준 단체 사진



■김두관 (사)전봉준 이사장, 국회의원

지난 4월 24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에서 사단법인 전봉준(이사장 김두관, 국회의원)에서 주최한 제127주기 전봉준 장군 순국 추모제가 열렸다. 국립민속국악원장 왕기석 명창의 판소리 '천명'과 '절명시' 공연으로 시작되어 추도사, 축사, 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추모식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으로 장소를 옮긴 후 사단법인 전봉준 소속 50여 명에 대한 임원 위촉장 수여식이 이어졌다.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정기총회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정기총회

지난 4월 26일 기념재단 교육관에서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날 열린 대의원총회에서는 2021년도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업무추진 경과보고, 2021년 결산 및 감사보고 등을 심의 및 의결하고,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유족회를 공익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정관 개정안을 심의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권수호를 위해 일제의 침략에 맞섰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대한 논의도 심도 깊게 이루어졌다.

제15회 녹두대상 선정



제15회 녹두대상 수상자 김양식 교수

지난 4월 11일 전북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녹두대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 15회 수상자로 김양식 청주대학교 교수를 선정하였다. 김양식 교수는 2009년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자료집 연구, 2011년 고창 동학농민혁명 역사기록화 제작에 참여하였다. 특히 2018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무장기포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공로가 높게 평가되었다. 이밖에도 김양식 교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추진위원회

회, 동학농민혁명기록물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제12회 동학농민혁명대상 선정



제12회 동학농민혁명대상(大賞) 수상자 전성준 교수

지난 5월 7일 제12회 동학농민혁명대상(大賞)에 전성준(사단법인 전봉준 공동대표, 국민대 교수)을 선정하였다. 수상자는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봉사손(奉祀孫)으로, 1993년 하반기 '동학농민혁명유족회창립준비위원회' 창립을 준비하던 때부터 물심양면으로 기여하였다. 특히 2004~2010년 (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운영위원, 2017~2018년 (사)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였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사)전

봉준장군기념사업회 사무총장과 (사)전봉준 공동대표를 맡아 '사람이 하늘이다'는 동학농민군의 차원 높은 인본주의 정신을 지금, 여기에 꽃피우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안군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김응문 일가(一家) 유골 발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김응문의 유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김자문의 유골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라도 무안군 몽탄면에서 동학 접주로 활동했던 김응문 일가의 유골이 지난 4월 28일과 5월 24일 무안군 몽탄면 다산리 용매마을과 무안군 청계면 월선리 월구정 묘에 각각 발굴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김응문(金應文 1849~1894)은 나주와 무안지역 향교의 뼈대 있는 향반(鄕班) 출신으로, 비정상적인 세도정치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만연한 부정부패에 공감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 이후 생가(生家)인 무안군 다산리 차피마을 뒤 대밭에 대장간을 만들어 병기를 제조하는 한편 군자금을 모아 동학농민군을 훈련시켰다고 한다. 또한, 김응문의 둘째 아우 김효문(金孝文, 1851~1894)과 막내(넷째) 아우 김자문(金子文, 1868~1894), 김응문의 큰아들 김여정(金汝正, 1867~1894)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참여하였다. 이들은 1984년 11월 18일 고막포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패배하여 김응문의 장남 김여정의 처가(妻家)가 있는 함평에 숨었다가 체포되어 1894년 12월 8일 김응문과 김자문, 김여정이 무안관아에서 참수되었고, 나흘 뒤인 12월 12일에 다른 곳에 피신해있던 김효문도 붙잡혀 처형되었다. 처형된 후 시신을 수습하지는 못하였으나 김응문의 집안이 향반이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덕을 쌓고 살았던 김응문의 머리만을 거두어 월구정 둔덕에 작은 무덤을 만들어 투장(偷葬)하였고, 막내 동생인 김자문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김응문 묘 바로 밑에 투장되었다. 둘째동생인 김효문은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김응문의 장남인 김여정은 무안읍에 묘를 조성하였다. 그렇게 102년이 지난 1996년 김응문 일가의 후손들은 김응문과 그의 부인 함평노씨를 합장(合葬)하고자 파묘하였다가 웅기항아리에 남아 있는 유골(머리)이 확인되어 파묘를 중단하고 다시 매장하였다. 이후 23년 후인 2019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전환되자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김응문 일가의 합동 묘역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4월 28일 파묘하여 참여자 김응문의 머리 부분이 기왓장에 덮인 채 발굴되었고, 참여자 김효문의 머리 부분이 거의 산화된 상태였으며, 참여자 김여정의 유골은 아무런 흔적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후 5월 25일 2차 파묘를 추진한 결과 참여자 김자문의 머리가 산화하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발굴되었다. 이처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확인된 사람의 유골이 온전한 형태로 발굴된 것은 매우 특별하다. 그동안 발견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골은 1995년 일본 북해도대학에서 발견되어 1996년 국내로 봉환된 후 2019년 조성된 녹두관(전주시 완산구 완산동)에 모셔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무명의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이 유일하다.

KBS전주방송총국 '녹두꽃 함성 나아갈 새로운 길은?'



KBS전주방송총국에서는 지난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4년, 녹두꽃 함성 나아갈 새로운 길은?”이라는 주제로 <K이슈>라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이 출연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사업, 동학농민혁명 가치의 세계화 등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전주MBC 초대석 '반갑습니다'



지난 5월 28일 방영된 전주MBC-TV '반갑습니다'라는 프로그램에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이 초대되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제정과 그에 따라 정신선양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기념재단의 활동이 논의되었다. 나아가 2019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된 이후 변화된 상황과 함께 지난 5월 11일 개원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내의 시설과 향후 운영계획,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관련 기록물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기 제1차 이사회



지난 4월 24일 새롭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5기 임원진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27일(수) 11시 기념재단 교육관 회의실에서 신임 임원진 상견례 및 위촉장 수여식을 겸하여 기념재단 5기 제1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규정 개정의 건, 기념공원 추진단 해산의 건을 심의 및 의결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현황 보고 등으로 이어진 이날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5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으로 임명장을 수여받은 신순철 이사장과 이사 선임 과정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신임 이사 주영채(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정해곤(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무총장), 위의환(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정선원(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이사장), 심형기(홍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이상성(한림대학교 명예교수), 왕기석(국립민속국악원장), 천진기(前국립민속박물관장), 이재운(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위원장), 이진식(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 이사의 위임을 받아 이종규(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사무관) 등이 참석하였다.

2022년 네트워크 포럼 —동학농민혁명, 미래의 중심이 되다—



지난 5월 4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내 교육관에서 '동학농민혁명, 미래의 중심이 되다'라는 주제로 2022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네트워크 포럼이 열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생중계(채널: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형태로 진행된 포럼은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씀, 주영채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의 축사로 개회식의 그 막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이만열(숙명여대 명예교수)의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과 한국사의 미래가치」라는 기조강연에 이어 김양식(충북대 교수)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원의 의미와 미래 비전」, 장윤식(제주 4·3평화재단 총무팀장)의 「평화와 통일 지향, 제주 4·3평화공원」, 박재웅(5·18기념재단 교육문화부장)의 「5월 역사와 사람을 잇는 다리」, 김용달(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前연구소장)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운동사연구소(가칭)의 설립 제안」, 이상호(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장)의 「세계기록유산, 활용과 연대를 위한 유산」 등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신영우(충북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배향섭(성균관대 교수), 문병학(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획운영부장), 왕현중(연세대 교수),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조재곤(서강대 연구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원광대 사학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최후항전지 유물 기증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최후 항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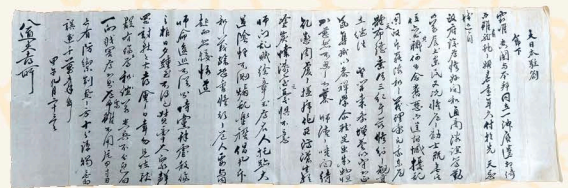
▣최후 항전에서 수습 된 탄피

원광대학교 사학과는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최후 항전지」에서 수습한 동학농민군 관련 유물 66건, 723점을 2022년 3월 기념재단에 기증하였다.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최후 항전지」는 우금치전투에서 패한 동학농민군이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곳으로 1999년 원광대 사학과 조사단이 처음 그 현장을 발견하였다.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사용하던 탄피 등 탄약 파편류와 옹기, 기와 등 생활도구가 수습되어 기증하였다.

조원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조남규 관련 유물 기탁



▣조남규 「접사임명장」(1894.7)



▣「대일본주차 초고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조남규(1867~1947)의 증손 조원희는 조남규가 남긴 유물 24건, 24점을 2022년 4월 기념재단에 기탁하였다. 참여자 조남규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복점법현 최시형을 보좌하며 경상도 상주에서 활동하였다. 기탁된 유물은 조남규가 1894년 7월 도접사로 임명받은 「도접사 임명장」과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에게 보내기 위해 작성한 「대일본주차 초고본」 등 동학교단과 관련 있는 필사된 문서나 서책 등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송영태의 손자 송기홍

일 시 : 2022. 6. 2(목) 11시

장 소 : 서울 종로구 여산송씨대종회 사무실

문 : 이번 호『녹두꽃』유족인터뷰에는 참여자 송영태(宋永泰, 1862~1921) 님의 손자 송기홍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답 : 녹두꽃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894년 갑오년 당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셨던 송 영자 태자님의 손자 송기홍입니다.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였는데, 그때는 저의 조부님이신 송 영자 태자님의 후손으로 활동하지 않고 저의 종조부(宗祖父)이신 송 경자 찬자님의 후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2004년인가?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신청서를 내서 등록할 때만해도 종조부님만 참여자로 신청하면 그 형제는 그냥 다 되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조부님은 신청하지 않았거든요.

문 : 조부님이신 송 영자 태자님의 큰 형, 그러니까 선생님의 종조부님이신 송경찬(宋敬贊, 1858~1894) 님의 후손으로서 활동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동학군이 고부성을 함락한 후 백산에 돌아와 진을 치고 재도(再度)의 격문을 발한 후로 호남일대는 물론이요, 전 조선강산이 고부백산을 중심으로 하고 흔들흔들 하였었다. 이때 전후로 모여든 장령급(將領級)으로 있는 사람들은 다

시 한 번 총괄적으로 검열(檢閱)하여 보면 대장 전봉준과 기타 장령격(將領格)으로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최경선, 오하영, 오시영, 임천서, 강경중, 송경찬, 고영숙....”(오지영, 『東學史』간행본, 대광문화사, 1984, 123p) 기록에 따르면 종조부께서는 백산대회 때 장령급으로 참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 네, 저의 종조부(曾祖父) 님의 살림이 넉넉지 못해 종조부님만 교육시켰답니다. 그 덕분에 종조부께서는 태인에 있던 무성서원으로 가서 공부하셨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다음 무장 근동의 마을 사람들이 “송경찬이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했더라면 큰 학자가 되었을 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1894년 이전에 손화중 대접주님이 저희 종조부님을 직접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조부님이 손화중 대접주님 아래 무장접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장기포, 백산봉기 등에 장령급으로 참가하신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문 : 네, 선생님 종(宗)조부이신 송 경자 찬자 님 애기와 함께 선생님 조부이신 송 영자 태자님에 대하여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은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는지요?

답 : 네, 제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이라는 사실 때문에 살아가면서 핏박을 받을까봐 집안 어른들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얘기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16살 때였을 겁니다.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던 때였는데, 서당 선생님께서 제게 “종(宗)조부님께서 살아계셨으면 큰 학자가 되셨을 것이고, 너의 집안이 대단한 가문이 되었을 것이다. 너의 종조부께



서 무장(茂長)의 두령으로 무장기포, 백산봉기, 황토현 전투 등에 참가해서 관군을 물리쳤다. 그때 동학농민군들이 말을 타고 총을 쏘며 아주 위세가 당당하셨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온 후 아버지께 서당에서 훈장님이 해준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 몹시 역정을 내시면서 다시는 그 서당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저를 데리고 이웃마을의 다른 서당에 데려다주셨어요. 새로 들어간 서당의 훈장님이 쉬는 시간에 모두 방으로 부르시고는 “정도를 걸으며 깨끗하게 살아온 집안이 있는가 하면, 비적들과 같은 동학난에 가담한 집안도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혹여라도 동학난에 가담한 집안과 절대 어울리지도, 아예 상종하지도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얼떨떨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날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훈장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 올리니 “그 서당 훈장님이 너를 제대로 가르치겠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렸을 적 자라온 이런 환경 탓으로 저는 2000년이 되기까지 동학난에 가담하는 것은 쌍놈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럴 즈음 아마 2000년도로 넘어온 다음일 거예요. 고창군 무장을 예전리에 사는 문국환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기화 고창문화원장님의 부탁으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유족들을 찾고 있다면서, 제가 무장접주로 활동했던 송경찬님의 유족인 거 같다고... 하여튼 그때 저희 집안의 족보와 재적등본을 이기화 선생님께 보내드렸더니 열흘 뒤쯤,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무실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해서 나갔죠. 그 자리에서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창립과 지금까지 운영해온 것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남기, 손주갑 이분들을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 부족한 제가 2002년도엔가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무총장을 맡아서 활동했어요. 제 집안의 종조부님, 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문 : 앞서 종조부님께서 무장기포, 백산봉기 때 장령급으로 참가했다는 점 등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는 조부님 그러니까 송 영자 태자 님의 활동에 대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답 :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백산봉기, 황토현 전투까지 종조부님과 조부님이 함께 참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조부님께서 무거운 짐을 나르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군 중에 짐을 놓는 사람이 있어 짐을 맞아보았지만 호전이 없어 결국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후 가족을 돌보라는 종조부님의 권유로 조부님께서는 9월 재봉기 때에는 출정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종조부님께서는 10월 삼례봉기에 참여하여 복상하던 중 공주 우금티에서 일본군과 관군을 상대로 혈전을 벌이다가 패한 후 피신하였습니다. 종조할아버지 살아생전에 종조할아버지의 심부름꾼 노릇을 했던 정 부자 집에 은신하고 있다가 누군가의 밀고로 체포되었고, 이후 나주로 압송되어 처형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끝내 시신은 거두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영자 태자 제 조부님께서는 종조부님이 처형당하신 후 종조부님의 부인, 그러니까 조부님의 형수님이시죠? 저의 조부님과 조모님은 종조부님께서 처형당한 후 형수님을 잘 모시고, 네 명의 조카들을 알뜰히 보살피서 향리의 사람들에게 ‘송경찬의 아우 송영태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칠 때도 있었고, 부모님께도 효자였고, 다시 없는 형제우애를 실천한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 : 반란사건으로 치부되었던 갑오년의 역사가 1994년, 혁명 100주년을 전후하여 재인식되기에 이르렀고, 2004년 3월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04년 9월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참여자와 유족을 조사하고 등록하게 되었지요. 처음에 종조부님만 참여자로 등록하셨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조부님이신 송영태 님도 참여자로 등록하셨지요?

답 : 네, 조부님도 나중에 참여자로 접수하여 등록하였습니다. 2019년인가? 하여간 접수한지는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유족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할 당시에는 종조부님만 등록하면 후손들은 유족으로 인정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부님은 등록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던 2007년도에 남원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를 개최하던 때였을 겁니다. 그날 우리 유족회 다른 회원들이 제게 ‘조부가 참여자로 확인되어 등록된 것도 아닌데, 무슨... 유족 행세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조부님을 참여자로 등록하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을 사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장호진님의 손자 장해룡씨가 제 조부님과 자신의 조부님이 서로 매제지간으로 동학농민혁명에 같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해룡씨가 관련 자료를 제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조부님을 참여자로 등록하려고 했으나 유족등록 신청기간이 지나버려서 신청서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되고, 법이 개정되어 참여자 조사가 다시 가능해져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2020년 참여자로 확인을 받아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문 : 성균관에서 선생님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종조부님과 조부님의 업적을 돌에 새겨 후대에 길이 전할 필요가 있다고 기념비를 세우도록 강하게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하여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 종조부님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제 당숙께서 종조부님과 그분의 부인 최씨 그리고 조부님에 대한 효자·열녀 통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언젠가 당숙께서는 한문 서당에 다녔던 저에게 통문을 해석해달라며 건네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요. 그 사이 당숙께서도 돌아가시고... 하여튼 제가 당숙께 받았던 그 통문을 책갈피에 너무 잘 끼워놓은 탓에 어디에 있는지도 까맣게 잊고 그냥자냥 세월이 흘렀어요. 20여년 그렇게 흐른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어느 해엔가 집안 제사 때 한 어르신들께서 '우리 집안이 가난하여 우리가 조상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 우리 집안에 효자·열녀 통문을 받아놓고도 가난하여 비를 세우지도 못하고 그 통문을 그냥 썩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때서야 제가 돌아가신 당숙님께 통문을 받아서 어디엔가 잘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제사 이후 곧바로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집안 곳곳을 뒤져 3개월 만에 통문을 찾았습니다. 책속에 너무 잘 끼워두었더라구요... 20여 년 만에 찾은 거라서 감회가 새로워서 눈시울이 붉어졌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 통문을 찾았던 해가 재단에서 주최한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가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에 열렸던 때였어요. 그때 유족회 이기곤 이사장님과 사단법인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 전해철 이사장님과 제가 같은 방을 썼는데, 제가 그 통문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전해철씨가 통문을 가지고 성균관으로 한번 오라고 그러더라구요. 기념대회를 마친 다음날 곧바로 통문을 가

지고 전해철씨와 함께 성균관에 가서 통문을 건네니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장이 “선생님 대단한 집안의 손이시네요. 길가에 비석들이 많지요. 그나마 그 내용들이 가짜들 태반이에요. 그런데 이 통문의 내용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얼른 비석을 세워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지표로 삼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박물관 직원들에게 서류를 잘 처리하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때 통문을 담당하신 실무자께서 제 문서를 보니 100년도 넘는 문서라 세월이 많이 흘러 그것이 진본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문서가 처음 작성된 곳인 전주향교와 무성서원에 가서 통문에 대한 사실여부를 추인받아서 가져오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종친회에 그간의 경과를 얘기하니 100년도 지난 것인데, 전주향교든 무성서원이든 그 통문의 사실관계에 대한 추인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다들 상심하더라구요. 저도 처음에는 힘들겠다 싶어 포기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신 당숙님도 생각나고 해서 그레 한번 부딪혀보자 그렇게 마음 먹고 전주향교와 무성서원에 연락을 취하고 찾아갔습니다. 마침 제 사촌처남 중에 정기동이라고 군산대학교 명예교수가 있거든요. 그 조카분이 성균관유도회 전북지부 회장을 역임한 황병근씨와 무성서원 원장 이치백씨, 전주향교 유옥균씨에게 전화해서 통문에 대하여 상황설명을 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 제가 가지고 있었던 통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주향교, 무성서원 등으로부터 추인을 받았습니다. 그 뒤 추인 받았다는 사실을 성균관을 가서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때 성균관에서 이런 사실을 비석을 세워서 후대에도 길이 전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지침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고 다시금 제게 권유를 하셨습니다.





문 : 아~ 네, 선생님. 통문을 찾아낸 것과 그 통문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추인을 받아낸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선생님 참 애 많이 쓰셨네요. 그렇게 비를 세우기 위한 노력 이 기울여지기 시작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지요?

답 : 작년 늦은 여름에 제가 비석에 새겨 넣을 내용을 일단 정리해서 유족회 손주갑씨 등과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었어요. 그 만남에서 손주갑씨가 이이화 선생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 그분 이 제쳤으면 비문은 금방 써주셨을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쑥 작성된 비문을 기념재단 문병하 부장에게 다듬어달라고 부탁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부장이 시인이면서 대학원에서 동 학농민혁명을 공부했고, 기념사업에도 오랫동안 몸담아온 사람이라 책임자인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글의 초안을 써서 작년 늦은 가을부터 문부장에게 몇 차례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기념공원 공사다, 국가기념일 기념식이다 뭐다 문 부장이 바빠서 못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제 건강이 작년과 올해가 달라서 더는 미룰 수 없겠다는 생각이 부쩍 들어서 지난 5월 11일 기념식이 끝나자마자 며 칠 뒤 정읍으로 내려가서 문 부장을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지금은 비문을 다 완성해서 논산시 양 촌에 있는 비석공장에 비문을 새기라고 넘긴 상태입니다. 문제는 비석을 세울 장소예요. 진윤식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이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저는 기념비를 건립할 장 소로 3곳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장포고가 단행되었던 구암리(공음면 구수마을), 두 번째는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종조부님 생가, 세 번째는 예전리 마을입구 쪽 큰길가 이렇게 생 각하고 있습니다. 뭣이든지 다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겠지요. 지금 진윤 식 고창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이 열심히 알아보고 있으니 좋은 소식이 있겠지요.

문 : 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잘 이루어지길 기원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여 빠뜨린 얘기가 있거나 기념재단에, 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 사실, 재단에는 별로 바랄 건 없습니다. 재단은 재단 나름대로 현재의 명예회복법에 따라 기념공원 조성사업이나 기념일을 제정해서 국가기념식을 매년 추진하고 있고,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최종적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단에는 크게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저는 저희 후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다른 집안의 후손들은 조상님들의 업적을 돈을 주고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조상님들이 훌륭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지만 돈을 주고 가짜로 훌륭한 업적을 만드는 경우도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태에서 우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지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엄청난 업적을 남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참여자 후손들은 정작 조상님들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갖지 않는 것에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이분들의 귀하고 숭고한 정신이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오늘 대한민국의 밑바탕이 되었잖습니까?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서훈국민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용규씨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유족들이 이 문제에 대해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기념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기관 또는 단체들과 실익도 없이 불편한 관계를 만들 게 아니라 우리 유족들이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내적으로 합심을 이끌어내 우리 조상님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드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나갈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 :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비문(碑文)

三綱碑

將軍 宋敬贊 義舉碑
烈女 全州崔氏 烈行碑
孝子 宋榮泰 孝行碑

동학농민혁명군의 무장(茂長) 두령(頭領) 겸 접주(接主) 송경찬(宋敬贊)의 본명은 영식(榮植)으로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에서 1859년 아버지 휘(諱) 송의호(宋義浩)와 어머니 전주이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계보(系譜)를 요약하면 여산송씨(礪山宋氏) 시조(始祖) 휘 유익(惟翊)은 고려진사 추봉은(淸光祿大夫) 추밀원부사요 4세(四世) 휘 송례(松禮)는 고려 문하시중 여량부원군 정렬공(貞烈公)이요 6세 휘 린(隣)은 정헌대부 밀직사 지신사 지신공(知申公) 파조(派祖)요 11세 휘 익손(益孫)은 여산군(礪山君)이요 16세 휘 상현(象賢)은 임난공신(壬亂功臣) 충렬공(忠烈公) 천곡선생(泉谷先生)이다.

영식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독서를 좋아하였다. 장성한 후에는 무성서원에서 박학심문(博學審問)하여 재덕을 겸비한 선비가 되어 대학(大學)의 수기치인(修己治人)을 실천하여 가정의 화목함을 보여주니 이를 이웃과 동네사람들이 본받았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 무장기포와 백산봉기는 물론이고, 2차 삼례봉기에도 참가하여 복상하던 중 공주 우금티에서 일본군과 관군을 상대로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다. 이후 고향으로 내려와 숨어 지내다가 1894년 12월 27일 관군에게 붙잡혀 나주감영으로 압송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기개를 잃지 않고 보국안민 만세를, 동학농민군 만세를 외치다가 관군에게 살해되었다. 그의 나이 36세였다.

영식의 부인 전주최씨는 좌찬성 평도공 휘 유경(有慶)의 후예로 영광(靈光)의 선비 진희(鎭淮)의 딸인데 어릴 때 규(閨)에서 배우고 극진한 효도로 어버이를 섬겼다. 시집와서는 가난한 살림에도 시부모님을 정성껏 봉양하고, 이웃에는 덕을 베풀 줄 아는 덕 있는 여자였다. 실제로 남편이 괴질에 걸려 백약이 효험이 없자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 죽을 끓여서 먹이고, 손가락을 찢어 남편의 입에 피를 쏟아 넣어 병이 낫게 하였다고 한다.

영식의 아우 영태(榮泰)는 하늘이 낸 효자이다. 조석으로 부모님 거처에 문안하였다. 항상 아버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밖에서 맛있는 음식을 보면 싸 가지고와 부모님께 올리는 등 효성이 남달랐다. 특히, 부친의 병환이 위중할 때 자기 몸으로 대신하고 부친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였고, 운명하시기 직전에는 자기 손가락을 잘라 부친의 입에 피를 흘려 넣어 하루를 더 살게 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효성을 다하였으나 부친께서 끝내 돌아가시자 애통하여 얼굴색이 먹처럼 새까맣게 변하였다고 한다. 이를 본 조문객들이 크게 감동하였다고 한다.

그는 형 영식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으나 체포되지 않아 처형을 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이후 자기 부인과 합심하여 홀로된 형수를 극진히 받들면서 어린조카 네 형제를 성심을 다하여 키웠다.

위 세 사람의 몸가짐, 극진한 효도, 남편 받드는 정성을 아름답게 생각하여 1887년 정해년(丁亥年)에 태인현(泰仁縣)에 있는 무성서원(武城書院)의 유학자 21명이 연명(連名)으로 통지문을 만들어 무장향교(茂長 鄕校)로 보냈으나 이후 영식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훌쩍 지난 뒤 2004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9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되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가 명실상부하게 회복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그 종손인 기흥이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옳지 못함을 알고, 통지문의 원본을 무성서원·전주향교·무장향교로부터 각각 추인을 받아 성균관에 제출하였다.

오호라! 요즘 세상이 어지럽게 흔들리고 삼강오륜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은혜를 망각하고 멸시하는 때에 장군 송경찬과 열녀 전주최씨, 효자 송영태 내력이 국민교육의 본보기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하여 성균관에서 이 비를 세우도록 하였다.

2022년 5월 11일

여산송씨대종회장 우윤(尤尹) 송길룡 글을 쓰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획운영부장 문병화 글을 다듬고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도와주고
후손의 성금으로 비(碑)를 세운다.

동학농민혁명천안기념사업회를 찾아서

일 시 : 2022. 5. 24(수) 11시

장 소 : 동학농민혁명천안기념사업회 사무실

문병학 이번 호 『녹두꽃』 지역대담은 충청북도 천안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천안기념사업회(이하 ‘천안기념사업회’) 강대석 회장님과 송영배 사무국장님,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기념도서관 이용길 추진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강대석 녹두꽃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대석입니다. 1998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천안지회장을 맡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해 정년을 맞아 오랫동안 몸담아왔던 교직에서 퇴직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던 터라 당분간 조금 쉴까도 생각했지만 작년에 천안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고, 회장직을 맡아달라는 부탁 때문에 쉬지 못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웃음) 아직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거나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하여 깊고 폭넓게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알지는 못하지만 동학농민군이 지향했던 이념 등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회장직을 수락하였고,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 천안 지역사회에 동학농민혁명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생각입니다.

송영배 안녕하세요. 천안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송영배라고 합니다. 저는 민간기업체에서 20여 년 동안 일을 하였고, 사립학교에서 2년 정도 행정실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천안역사문화연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천안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회원님들과 함께 배우면서 천안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현재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여나갈 생각입니다.

이용길 안녕하세요. 동학농민혁명기념도서관 건립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이용길입니다. 천안기념사업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는 사회활동에 전념하다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 부터는 고향 천안에 관련된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천안지역의 근·현대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천안역사문화연구회 회장을 맡아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문병학 2022년 5월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단체는 모두 34개입니다. 천안 기념사업회는 지난 해 5월 11일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일에 맞춰 창립되었지요? 창립배경과 창립과정에서 있었던 일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천안지역의 근현대사를 탐구 해보자는 취지로 2018년도 천안역사문화연구회를 창립했습니다. 천안역사문화연구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사업은 매주 토요일 시민들과 함께 하는 ‘역사탐방길’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 토요일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 탐방, 두 번째 주 토요일은 3·1만세운동 관련 유적지 탐방, 세 번째 주 토요일은 4·19혁명과 6월 항쟁 관련 유적지 탐방, 네 번째 주 토요일은 천안지역에서 일어난 학살과 침탈의 흔적이 있는 유적지 탐방, 다섯 번째 주 토요일에 근대 소설의 문호이신 민촌 이기영 선생님 소설의 배경 탐방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코로나가 심해서 유적지 탐방 추진이 다소 여의치 못해 다른 연구를 해보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동학농민군 세성산 전투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학자님들을 모시고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2019년 11월 30일 ‘천안세성산전

투학술대회'입니다. 원래는 학술대회 발표를 몇 해 전 별세하신 이이화 역사학자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선생님께서 발표를 못하시고, 독립기념관 홍동현 박사님이 대신 발표하셨습니다. 그 학술대회를 진행한 후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천안지역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을 추진해나갈 사업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체창립을 준비하여 2021년 5월 11일에 동학농민혁명천안기념사업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강대석 사실 원래 천안기념사업회 창립은 5월 10일에 갖기로 하였습니다. 천안 평화공원 야외에서 창립한다고 언론에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는데, 10일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바람에 하루가 연기되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인 5월 11일에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은 서울 경복궁 흥례문광장에서 열렸잖습니까? 사실은 10일날 저희 천안기념사업회가 창립을 한 후 11일날 깃발을 높이 들고 서울 경복궁 기념식에 참석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웃음)

문병하 결과적으로는 참 좋은 날 창립식을 갖게 된 셈이네요?(웃음)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2019년 2월 26일 제정되었습니다. 기념일 제정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념사업단체에서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19년까지만 해도 5월 11일날 기념행사는 황토현 전승지가 있는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정읍계승사업회)에서만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념일이 제정된 이후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기해 기념식을 개최하는 곳이 늘었습니다. 올해는 충북 청주, 전북 남원, 충남 공주, 전남 장흥, 경남 산청 이렇게 5곳에서 기념식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5월 11일에는 우리 천안기념사업회가 주동하여 천안시 등과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웃음)

이용길

제가 천안 세성산에 대해 알게 된 계기는 청년시절에 읽었던,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신동엽 시인의 대서사시 「금강」이라는 장편서사시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천안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려면 동학농민혁명부터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게 되었지요. 신동엽 시인의 장편서사시 「금강」 중후반에 ‘천안 세성산에 복점 농민군 5천을 전 위부대에 배치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천안사람으로서 문학작품 속에서 세성산의 지명을 대하니 괜히 더 눈길이 갔고, 내 고향 천안에도 위대한 역사의 흔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벅찬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제가 1998년인가? 1999년인가? 천안으로 내려와 천안민주단체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 추진한 첫 번째 사업이 제104주년 동학농민혁명 세성산 합동위령제였습니다. 천안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 관련하여 개최된 첫 번째 공식행사로 아주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이후 2002년 무렵 천안농민회가 창립되어 2021년 천안기념사업회가 창립되기 전까지 농민회에서 위령제를 모셔왔고, 그 과정인 2012년도에는 세성산 전투지에 위령비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천안기념사업회가 농민회로부터 위령제를 위임받았고, 최근 들어 세성산 등산로에 천안 세성산성이라는 안내판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문병학

네, 위원장님. 천안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를 얘기한다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세성산 전투지일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저는 천안지역의 유적지 중 중요한 곳으로 청나라와 일본군이 전투를 벌인 성환도 아주 중요한 유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 동학농민혁명사에 대한 연구의 맥락을 살펴보면 무슨 까닭인지 몰라도 역사학계, 한국사에서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을 깊이 연계시킨 연구가 많지 않습니다.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이 매우 깊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현상에 큰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이 근대역사 기술에서 동학농민혁명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청일전쟁(일청전쟁)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고를 전진시키면 왜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와 그 인식이 ‘전라도 고부 → 충청도 공주 우금티’라는 공간적 범주와 시간적 범주에 머물러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조금은 해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사 이외에 한 일관계, 중일관계, 한중관계 등을 다루는 정치·외교학계에서는 동학농민군 전주성 점령과 조선정부의 청나라에 파병 요청, 일본군 조선진출 및 청일전쟁 발발의 상호 연계성과 그 시기의 국내외적 역학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을 깊이 연계시켜 연구하고,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1894년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적 상황, 세계사적 상황이 씨줄날줄로 연계되면서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을 보다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천안기념사업회에서 깊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유적지가 1894년 7월 29일 일본군과 청나라 군대 사이에 벌어진 성환전투, 그 전투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말씀해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는 ‘1894년 10년 전인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10년 후인 1904년 러일전쟁’ 이 시기를 깊이 서로 연계시킨 후 그 맥락을 살폈을 때 비로소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을 보다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길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때 천안에서 ‘이이화 선생 초청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강의가 끝난 뒤 이이화 선생님께서 행사를 주최한 저희들과 저녁식사를 드시면서 세성산에 기념관을 짓겠다는 우리들의 계획에 대해 관심을 표시하면서 만약에 천안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을 건립한다면 선생님이 소장하고 있는 책자 등을 기증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연구에서 이이화 선생님이야 단연 최고의 학자이신데 평생 모은 것을 기증하신다니 우리들은 크게 기뻐했지요. 그래서 바로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선생님께 ‘세성산에 기념관을 건립한다면 선생님께서 기증하신 도서로 채워서 한 개의 층을 〈이이화 도서관〉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선생님께서는 천안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때 우리와 같이 세성산을 둘러보신 후 우리 회원들에게 선생님이 작성한 소장자료 목록을 주시면서 “대학교나 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기증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었어도 응하지 않았는데, 세성산에 기념관을 건립한다면 기증하겠다. 이이화 도서관으로 하지 말고 동학농민혁명 자료관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이화 도서관으로 하면, 내가 소장 책자 등을 천안 기념관에 기증한다고 하면 다른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들도 자기 소장 책자 등을 기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이화 도서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기증을 받는데 제약이 따를 것이니 〈동학농민혁명 자료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빈 것이 마지막이 되었어요. 그렇게 파주로 올라가신 후에 입원소식을 들었고, 그로부터 한참 후에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았거든요. 아무튼 이이화 역사학자님께서 소장하고 계신 책자가 중요한 것임은 물론이고 가지고 계신 여러 자료들이 문화재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충청남도나 천안시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이이화 역사학자님과 우리들 사이에 논의된 내용을 얘기하면서 세성산 기념관 건립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등을 얘기해봤지만 쇠귀에 경 읽기 수준이라 시간만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2월 천안에서 동학 경전인 『동경대전』 목천판 진본이 발견되면서 천안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분위기가 수면 위로 떠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역사학자들을 설득한 끝에 자료관에 책자를 기탁하겠다는 뜻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학자들의 얘기가 『동경대전』도 발견되었으니 자료관이라고 하지 말고 <동학농민혁명기념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논의 끝에 도서관으로 확정짓기로 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으로 건립제안서를 작성하여 각계각층에 배포하였습니다.

강대석 위원장님의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부연하여 설명 드리면, 동학농민혁명기념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천안기념사업회, 천안역사문화연구회, 동학농민혁명천안유족회, 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등 많은 단체가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 후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님, 구본영 천안시장님 등을 꾸준히 만나 도서관 건립을 지방선거 출마 공약으로 넣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문병학 네, 위원장님 열정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천안에 동학농민혁명기념도서관이 건립된다면 그 의미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해 충남 태안군 백화산자락에 건립된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이어 충청지역 기념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물이 전라도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늘어나는 현상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기념도서관 건립사업 이외에도 그동안 천안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해온 기념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지난 1999년부터 세성산전투에서 희생된 동학농민군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매년 위령제를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천안시민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지역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사건이며, 그에 따른 중요한 유적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학생들과 일반인을 상대로 유적지를 답사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세성산전투에서 희생된 동



화농민군의 낯을 기리는 위령제는 계속 모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아가 천안지역 동학농민혁명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그 위상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백일장 또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의 바탕이 중요하니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초청강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문병학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전후해서 한 세기 동안 왜곡·축소의 길을 걷던 갑오년의 역사가 2004년 특별법 제정, 2019년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역사인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1986년 설립되어 동학농민혁명 역사바로세우기에 크게 기여한 역사문제연구소(소장 이이화)를 비롯한 역사학계의 노력과 전국 각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기념사업을 펼침으로서 대중적인 역사인식의 전변을 이끌어낸 전국 각 지역의 기념사업단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왜곡되고 축소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매진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새롭게 정립된 역사를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 사람이 하늘이라는 차원 높은 인본주의 정신을 온누리에 꽃피우고자 했던 동학농민군의 숭고한 정신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승화시켜나가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끝으로 국장님께서 천안기념사업회가 지향하는 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여쭙고 인터뷰를 마치고자 합니다.

송영배

전국에 몇 곳인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도 있고, 지난 5월 11일 개원한 정읍 황토현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와 책자를 집중화한 기념도서관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천안기념사업회가 추진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도서관 건립사업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되어 관련단체들이 교통의 요충지인 천안에 와서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그럴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빠른 시일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써나갈 생각입니다. 기념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협력해주시길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웃음) 그리고 아까 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세성산전투지의 중요성과 함께 성환전투가 지닌 역사적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성환전투에 대해 그동안 조금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학술토론 등을 통해 성환전투가 지닌 역사적 의미 등을 정립하는데도 힘을 기울여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병학

회장님, 사무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념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님 바쁘신데 긴 시간 대담에 응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북 정읍시

김개남장군 순국 제128주기 추모제



지난 4월 9일 김개남 장군 묘역(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669-1)에서 '김개남과 상두산회'(회장 김호영)의 주최로 제128주기 김개남장군 추모제례가 거행되었다. 추모제는 국민의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개회사, 추모사, 추모제례, 참가자 분향 및 재배·분향·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추모제에는 유진섭 정읍시장, 심재식 정읍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김용선 고창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김봉승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김재오·김승범 정읍시의회의 의원, 박은숙 원광대학교 부총장을 비롯하여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하여 김개남 장군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전북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제128주년
무장기포기념제

지난 4월 25일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에서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가 고창군(군수 유기상)과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진윤식) 주최로 열렸다. 풍물패를 앞세운 길놀이, 문화공연, 제15회 녹두대상 시상(수상자, 김양식 청주대학교수), 무장기포지 사적 지정 경과보고, 동학농민혁명군 4대 명의 제창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주철 고창부군수, 최인규 고창군의회의장 등 지역사회 인사를 비롯하여, 김봉승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김양식 충북기념사업회장, 안경엽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장, 조복래 장성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장, 최高原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 등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념사업단체 임원들이 참석하여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의 의미를 드높였다.

전남 무안군 제128주년 무안군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지난 5월 4일 무안군 몽탄면 차뢰마을 앞에서 (사)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박석면) 주최로 제128주년 무안군 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개최되었다. 고막포전투지에서 희생된 동학농민군의 위령제를 엄숙하게 거행한 뒤 차뢰마을로 이동하며 진군식을 가진 후 무안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김응문 일가 현창비(顯彰碑) 제막식을 가졌다.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무안 지역에서 활동한 김응문(金應文, 1849~1894)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군자금을 모으고, 각종 병기를 제작하여 동학농민군을 훈련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아가 김응문의 친동생 효문, 자문 그리고 아들 여정 등 일가(一家)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희생되었다. 이를 기리고자 무안군청과 (사)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나주김씨 대종회에서 김응문 일가 현창비를 건립하게 되었다.

전남 장흥군 제128주년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식



지난 5월 11일 전라남도 주최, (사)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위익환) 주관으로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제128주년 장흥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폐정개혁 12개조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만세삼창, 장흥남초등학교 합창단의 합창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여성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소사가 말을 타고 무대 위로 등장하는 상황을 연출한 국악공연이었다.

전북 정읍시

제55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지난 5월 7일과 8일 양일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황토현전적, 사적 제295호)에서 정읍시가 주최하고,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이사장 김봉승)가 주관한 제55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그때의 하늘, 지금의 우리'라는 주제 아래 다채롭게 펼쳐졌다.

첫째 날,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대외마을)에서 위령제를 시작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내 야외캠핑장에서 어린이 사생대회 및 백일장대회가 진행되었으며, 오후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위패 378위가 모셔진 황토현전적지 내 구민사(求民祠)에서 엄숙하게 추모제례를 봉행하였다. 또한, 오후 5시 30분부터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내 특설무대에서 격문낭독, 제12회 동학농민혁명대상(大賞) 시상식(수상자, 전성준 사단법인 전봉준 공동대표), 주제영상 상영 등 기념식이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둘째 날, 옛 기념관 구민사·제민당 앞 광장 등에서 전국 황토현 농악경연대회,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공연, 동학 청년 집강소-청년 동(同)동(動), 나무메기와 함께하는 끼승전결 등의 프로그램들이 신명나게 펼쳐졌다.

경남 산청군
제128주년
산청동학농민혁명기념식



지난 5월 11일 산청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하재호) 주최로 경남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동학농민혁명기념비 앞에서 제128주년 산청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열렸다. 동학농민혁명군 폐정개혁 12조 낭독, 기념사, 축사, 동학농민혁명의 노래 합창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성연석 경남도의회 의원, 심재화 산청군의회 의장, 이연주 산청군 시천면장, 양정석 산청군 농민회장을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단체 회원 등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여 동학농민군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충북 청주시
제128주년
청주동학농민혁명기념식



지난 5월 11일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김양식) 주최로 청주시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및 제4회 충북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은 대금연주를 시작으로 개회사 선언, 국민의례, 동학농민혁명 홍보영상 상영, 기념사, 축사, 시낭송 등으로 진행되었다. 국가 기념일 제정 4년을 맞아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한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오는 10월 15일 동학깃발문화제와 12월 6일 청주성전투 희생자 위령제를 성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 장성군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우금티 기념식



지난 5월 27일 장성 황룡승전기념공원에서 장성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조복래)와 광주·전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대표 이상식) 두 단체 공동주최로 제128주년 장성황룡 동학농민혁명군 승전기념식이 열렸다. 국악, 한춤, 창 등 식전공연으로 행사를 시작한 이번 기념식은 국민의례, 경과보고, 폐정개혁 12개조 낭독, 축사, 축시 등으로 진행되었다.

전북 전주시
2022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 행사
-바로서는 역사, 다가서는 통일-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이종민)는 ‘바로서는 역사, 다가서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2022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 행사>를 전라감영·전주한옥마을·전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서 개최하였다. 진행된 주요행사는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128주년 기념식(5. 31. 전라감영 선화당 마당 특설무대), 2022 동학농민혁명 전주지역 유적지탐방(6. 4.), 동학농민혁명 128주년 기념전시회와 동학농민혁명 시민체험전(6. 5.~11.) 등이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자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사진을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그린 학생들의 그림을 전시하였고, 동학농민혁명 주제영상 상영 및 판화 찍어보기 체험 행사를 새롭게 추진하였다.

녹두꽃, 다시 피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 전시실과 녹두학당을 활용하여 동학농민군 캐릭터 만들기, 입체퍼즐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내 기념시설물 활용 및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있다.

정읍시, 상평어린이집(2022.05.13.)



정읍시, 현정어린이집(2022.05.18.)



전주시, 자연초등학교(2022.05.19.)



정읍시, 소성중학교(2022.05.20.)



정읍시, 호남중학교(2022.05.25.)



완주군, 고산초등학교(2022.05.26.)



순창군, 북중학교(2022.05.28.)



전주시, 효림초등학교(2022.05.30.)



무주군, 안성고등학교(2022.06.03.)



진천시, 진천상업고등학교(2022.06.10.)



전주시, 전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2022.06.11.)



전주시, 전주고등학교(2022.06.11.)



완주군, 용진초등학교(2022.06.17.)



기념관 방문단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상설전시관이다. 동학농민혁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념관에는 다양한 주제를 토론할 수 있는 세미나실과 어린이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나이가 어린이 교육체험 공간으로 녹두화당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과 6월 사이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단체관람객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다녀갔다.

주요 방문단체는 광주 살레시오 초등학교(30명), 정읍초등학교(7명), 정읍보성초등학교(20명), 정읍동초등학교(28명) 등이다.



1	2
3	4

- ① 광주 살레시오 초등학교
③ 정읍보성초등학교

- ② 정읍초등학교
④ 정읍동초등학교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 일	언론사명	기사제목
3월 22일	인천일보	여주세종문화재단, 동학 2대 교주 최시형 일대기 다룬 '해월' 발간
3월 28일	전북도민일보	원광대-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김개남 장군 재조명
4월 4일	아시아경제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동학농민혁명 유족에 월 10만원 수당 지급"
4월 10일	새전북신문	[특별기고]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 장군을 추모하며
4월 11일	더팩트	정읍시, 김개남 장군 순국 128주기 추모제 거행
4월 12일	새전북신문	2차 동학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위한 '독립유공자에우법 개정안' 발의
4월 20일	새전북신문	[기고]왜곡된 역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미래를 찾다
4월 20일	NEWS1	원광대, 대둔산 동학 최후항전지 관련 유물 723점 기념재단 기증
4월 21일	CBS노컷뉴스	동학농민혁명기폭제·고창 무장기포지 '국가사적 지정'
4월 24일	전라일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리킵 시즌3 '태권유랑단 녹두' 전국 첫 순회공연
4월 24일	경기일보	사단법인 전봉준, 전봉준 순국 추모식 진행
4월 24일	전북일보	정읍시 '제12회 동학농민혁명 대상'에 전성준 국민대 특임교수 선정
4월 25일	NEWS1	고창서 동학농민혁명 제128주년 무장기포기념제 열려
4월 28일	전민일보	부안군, "제128주년 동학혁명 백산대회"기념 동학정신 선양사업 추진
5월 2일	NEWS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일 '동학...미래의 중심되다' 포럼 개최
5월 2일	연합뉴스	동학농민혁명 확산 시발점 '고창 무장기포지' 사적 됐다
5월 3일	한겨레	동학농민혁명도 항일운동이다
5월 3일	연합뉴스	제55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7~8일 정읍서 개최
5월 4일	KBS NEWS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연구소 건립해야"
5월 6일	Breaknews	128주년 동학혁명 백산대회 기념식 개최
5월 6일	KBS NEWS	무안군 동학군 장군 유골 발굴...현창사업 활발
5월 6일	부안독립신문	동학의 맥을 잇는 백산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학교에 물들다'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 일	언론사명	기사제목
5월 6일	뉴스웨이	장흥군, 11일 제128주년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식 개최
5월 9일	한겨레	농민군 이끌다 처형당한 양반 형제들...128년만에 재조명
5월 9일	제주의 소리	생생한 사건으로 재구성한 동학농민혁명 이야기
5월 10일	NEWS1	고창군, 전봉준장군 동상 건립...작가 공모방식으로 변경 추진
5월 11일	더팩트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성공적 마무리
5월 11일	KBS NEWS	[이슈K] 동학농민혁명 정신... '녹두꽃 함성' 나아갈 새로운 길은?
5월 11일	YTN	128년 만에 다시 울려 퍼진 동학농민혁명 함성
5월 11일	NEWSIS	전병극 차관,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참석
5월 12일	대전일보	공주시,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자주와 평등의 숭고한 정신'
5월 16일	NEWSIS	양승조 후보 '동학농민혁명기념도서관 건립' 정책 협약
5월 17일	NEWS1	'5월의 정읍 역사인물'...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 선정
5월 19일	데일리스포츠 한국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를 서훈해야
5월 26일	전남일보	장성 황룡강전투 이야기...창극 '황룡가온'
5월 28일	쿠키뉴스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공주농민회-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 성명서' 발표
5월 30일	전라일보	2022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 행사 '다채'
5월 31일	전주MBC	동학의 역사와 의미를 찾아 떠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6월 1일	새전북신문	128년 전 승리의 함성 재현... 동학농민혁명 정신 기려
6월 3일	연합뉴스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김응문 일가 묘에서 두상 유골 발굴
6월 6일	KBS NEWS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17일까지 혁명 관련 유물 구매
6월 7일	새전북신문	정읍시, 시민과 함께하는 '동학농민군 지도자 묘역참배'
6월 7일	KBS	명예회복기의 기록들...민란에서 혁명까지
6월 9일	충청뉴스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 개최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자료) 기증·기탁 안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 및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자료)을 대상으로 기증·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기증·기탁 해주신 소중한 유물(자료)은 이후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전시 등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항구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합니다. 관련 유물(자료)을 소장하고 계신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기증·기탁 유물

- 동학농민혁명 관련 고문서, 고서적, 사진(무기·농경 등)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서신 및 자료 등
- 기타 기념재단에서 연구·전시·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물 및 자료

● 참가 자격 : 개인, 기관, 단체 등

● 수집 방법 : 대상 유물 확인 후 유물(자료) 수령

- 기 증 : 유물 및 유물의 소유권을 기념재단에 기부
- 기 탁 : 유물만 기념재단에 일정기간 위탁(유물 소유권은 소장자에게 있음)
※ 기증 및 기탁은 조건 없는 무상 기증(기탁)임

● 기증·기탁 유물 처리 및 활용

- 수장고 보관 등 항구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 동학농민혁명의 학술연구·전시·교육 자료로 활용
- 기념재단 소장품 등록 및 필요 시 특별 전시(기증·기탁자 명 표기)
- 중요 자료의 문화재 지정 추진

● 기증자(기탁자) 예우

- 기증·기탁증서 및 감사장(패) 수여(필요시 기증식 거행)
- 기념재단 중요행사 시 초청
- 간행 학술도서 및 학술지·도록·소식지 등 발송

● 기증·기탁 방법

- 접수기간 : 연 중
- 접수방법 : 접수처 문의
- 접 수 처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주 소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락처 : 063-530-9430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 신청안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 등록 신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족분들이 빠짐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이웃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 대상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

● 등록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 유족명단(동일한 참여자에 여러 명의 유족이 있는 경우)
 - 신청인의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또는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그 밖에 유족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 제출방법

- 심의위원회 사무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사무처 주소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 온라인 접수·FAX 접수는 받지 않음

● 문의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사무처(☎ 063-530-9434)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 및 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cdpr.go.kr) 참고

동학농민혁명박물관 상설전시관 개관

Opening of the permanent
exhibition hall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Museum

1894년 그날의 '혁명'을 다시 짓다
Again Build the Revolution of the Day in 1894

